

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-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●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선원 ●FAX: (031)470-3116



대행스님

길을 묻는 이에게

제 627호 현대불교
2007년 5월 9일(음력 3월 23일) 수요일 / 불기 2551년
법공양 페이지

21

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 영원한 부처님오신날!

(지난 호에 이어서)

▲질문자(남): 그런데 스님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금방 제가 부처가 될 것만 같고 하늘을 날 것 같고...

▲스님: 이것 봐! 부처가 되려고 하지도 마라. (대중 웃음) 이 세상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길 테니까. 그러니까 그대로,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.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딱 걸 때 '네가 하는 거지, 너!' 하고선 말 안 해도 '너!'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캄캄할 사이야. 그러니 재성이 돼서 제가 나을 때는 거처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불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와.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이 도리를 어떻게 공부하겠나?

이 세상에 잡지 왔다 가는 거야.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, 가난 때문에, 병고 때문에, 잘 살아야지, 위대하게 돼야지,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라, 진짜! 진짜! '안 돼! 이거는 어떠한 억압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' 안 되는 거지! '하란 말이야, 안 돼!'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. 이게 이렇게 때문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. 그러곤 그냥,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찢단 말이야!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,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야.

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째 일요일은 항상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쓰리고 아픈 상처를 아물리고, 내 몸에 들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들락거리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일하고,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 세계를 융화시킬 수 있어야겠지. 전 세계를 융화시키고 견지려면 또 우리가 집을 잘 지켜야 하지. 지구집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다 이거야. 우리의 집이니까, 내 몸도 그래. 여러분이 부모에게 배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느냐? 부모에게 잘해 드리고 잘 말도 나오게 생겼지, 봐요. 오늘 뭐, 어린이날이면서?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"애들 오면 필 좀 줘야지." 그랬더니 "오늘 어린이날이 돼서 다 싸 냈는데요." 그래서 "아휴, 너희들

부모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니, 오늘 그런 말도 나오게 생겼지, 봐요. 오늘 뭐, 어린이날이면서?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"애들 오면 필 좀 줘야지." 그랬더니 "오늘 어린이날이 돼서 다 싸 냈는데요." 그래서 "아휴, 너희들

이 나보다 천 배 만 배 낫구나. 난 그것도 모르고 얘기만 했는데..." 그런 얘기를 했어요.

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, 다리가 아프다, 어디가 병들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아파하는지, 그거는 자식을 입장에서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.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. 이게 효도입니까, 어디?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, 젊은이들도. 자기 몸 막 굴리면,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하죠, 또, 상구보리(上求普

이번에 "사월초파일 메시지를 쓰세요." 그래서 "그걸 왜 벌써 쓰냐? 4월 8일은 아직도 멀었는데." 그러니까 "먼저 모두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, 지원에."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된대요. 그 소리를 듣고 "그럼 받아 써!" 했습니다. 그래 놓고서 또 자기가 해 놓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사무장님더러 읽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고는 "그거 누가 했는지 3단계로 골랐구나." 그랬어요.

그런 것처럼 4월 8일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4월 8일입니다. 왜냐? 4월은 바로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고 8일은 유(有)·무(無), 즉 말하

본 예가 없어요. 알기야 뭐 불자라면 아마 열 살만 넘었다 하면 다 알 겁니다. 그 소릴 들어서. 그런데 행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깊은 속을 모른다 이겁니다.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. 오늘은 시간 제한하지 말고 우리 그냥 쪽 빠져 보죠, 그냥, 하하하...

▲질문자2(남): 스님! 스님도 못났고 저희들도 못났다고 그래서, 못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(대중 웃음) 스님께서 저희들을 공부시키면서 몰락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. 때로는 무

이겁니다. 그런데 요 방울 조 방울, 요 방울 조 방울이 연방 나오는데 한국에서 나와서 한 가지로 고정되게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? 천차만별로 다른 방울이 그냥 솟아 나와요. 그 쪽속에서 쪽방울이 말입니다. 방울은 작고 크고 달라도 쪽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쪽속에다가 놔라, 이런 건데, 즉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'요놈도 문수! 요놈도 문수!' 하고 쪽방울이 나오는 대로 주격으로 찢다지 않습니다.

그렇듯이 그것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. 우리가 살림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데, 병고로 인해서 걱정, 가난해서 걱정, 회사에 가서 상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서 걱정, 또 애들이 속을 썩어서 걱정, 또 부부기간에 싸워서 걱정, 돈이 없어서 걱정 뭐,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그러니까 '쪽방울은 쪽방울인데 그렇게 다른 쪽방울이냐 그것들이 다 다른 쪽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만 믿고 알아라. 그러면 거기에 다 놓는 거다.' 이렇게 됩니다.

그러니까 한 숲의 쪽방울이니 걱정을 하지 말고, 당장 애가 나가서 죽는 다 이러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'거기에서 나온다' 하는 거를 안다면 그 애는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벌써 전체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. 가설이라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, 내 형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가설이고, 아들이라는 거 마누라라는 거 알지, 어머니라는 거 알지, 다 알잖아요, 여러분 가족은.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절친하면 절친한 대로 다 알아요.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 내가 한생각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식구들까지도 다 통화가 돼요. 거짓말 아니에요.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. 그러니 거기에서 벌써 '난 집으로 들어가고 싶구나.' 이러곤 저절로 들어오죠. 자동적이예요. 그거,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다투어 그제 이심전심이예요.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.

애들이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"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." 그러다면 어른이 생각할 때 전부당만부당할지라도 "그래,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봐라." 그러고선 아주 좋게 그냥 받아 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경솔하고 딱 떨어져게끔 마음에다 관해 놓으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 해 보고는 "아이, 아버지, 나 그거 고만두겠어요." 하게 됩니다. 그러면 "왜 고만두냐?" 외려 그러거든.

22면으로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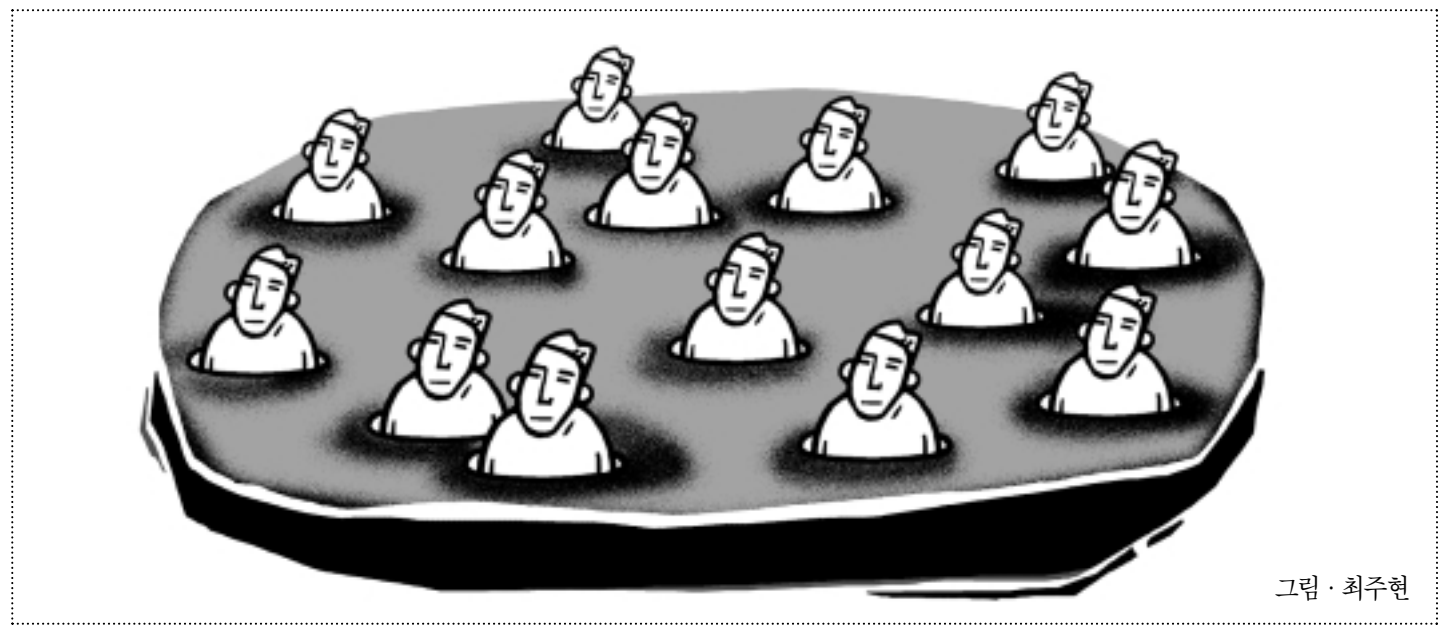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提) 하화중생(下化衆生)이라고 그랬잖아!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할 땐 자기 집이 있느냐 마나지, 그거. 제도 못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,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, 인연들도 다 그냥 풀려지는 거야.

미래의 정신세계가...,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지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고, 과거 자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있어요. 현재의 자리가 미래, 과거 자리가 현재로 돼 가지고 돌아가니까, 불바퀴처럼 돌아가니까, 바로 불바퀴가 여러분이 공(空)해서 자꾸 돌아가니까, 끊임없이 돌아가니까,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떠들지 않고 그런다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, 오늘이 바로 영원한 그날이죠.

면 사무사유(四無四有)가 한데 합쳐져서 돌아간다는 거를 뜻해서 4월 8일입니다. 그 '오신 날'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. 그 뜻을 깊게 생각해 줍니다. 바로 영원한 오늘이죠. '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'이 세! 했단 말입니다. 이 못난이가 잘했죠? 이때요? 허허허... (대중 웃음) 그러니 여러분도 못난이죠? 나도 못났고요. 부처님도 전부 못났어요. 아주.

못났으면서도 가설(迦葉)에게 다자탑(多子塔)의 반을 탁 내주면서 앉았던 말입니다. 아, 참! 그것은 이 세상에 조금도 버림이 없는 한자리였습니다. 한자리.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자리를 내주신 그 뜻이 얼마나 깊습니까?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읽고 돌아가기만 하지 그 뜻을 한 번도 새겨

조건 말기라고도 하시고, 그런데 그 몰락 놓으라, 무조건 말기라는데 생각이 미치는 그놈하고, 말기는 높은 누구이며 말는 높은 또 누구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. 결국은 말기는 자와 말는 자가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. 또 놓고 말기는 거기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만 놓는 것도 말기는 것도 없는 셈이 되는데, 스님께서 "놓아라! 놓아라!"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궁금합니다.

▲스님: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. 큰 숲에다 팔죽을 쑤는데 말입니다. 팔죽 방울이 너무 많거든. 수도 없이 그냥 막 풀어오르단 말입니다. 여러분 뱃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놓는 데도 한군데, 나오는 데도 한군데

공갈 못 백련지 조성

공갈못 노래비
연밭 따는 노래
상주 함창 공갈 못에
연밭 따는 저 처자야
연밭 줄밭 내 따줄게
이내 품에 잠자주소
잠자기는 어렵 짝소
연밭 따기 늦어 가오

어느 지역에서든 2~3시간이면 삼백의 고장 상주에 도착할 수 있는 이곳에 백련지가 조성. 총 10ha(3만평)규모로 조성이 되며, 연차적으로 10만평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. 백련이 피어나면 연에 대한 모든 연음식 연잎차 등 백련의 매력에 매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현재 호암사 아동시설 호암룸비니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한 백련(연잎차)와 백련분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연향차의 체험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.



오시는 방법

-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구미간 고속도로 이용하여 함창 점촌 IC에서 내리면 5분거리
- 경남 쪽에선 구미~여주간 고속도로 이용 북상주에서 내리면 공갈못 공검지에 도착 호암백련지를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.

연락처 : 054)541-7862~3

부생육기(浮生六記)의 연향 차

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보여주는 "연꽃 이야기"가 있다. 지혜로운 아내의 연꽃처럼 고운 마음을 담은, 청나라 건륭(乾隆)때 심복(沈復)이란 사람의 자서전 부생육기(浮生六記)라는 책이 있다. 심복이 부생육기를 쓴 것은 그의 아내 운(芸)에 대한 사랑의 추억 때문이다. 심복은 아침마다 아내가 내주는 차의 향이, 독특하고 은은했다. 같은 차로 수십 번 자신이 우려보아도 그 향을 따를 수 없었다. 가만히 아내의 차 끓이는 방법을 눈여겨보았다. 연못에 피는 수련은 저녁에 꽃 심을 오므렸다가 아침이면 활짝 핀다. 아내는 저녁나절 꽃송이가 오므릴 때비단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 심에 놓았다. 차를 품은 수련은 밤새 별빛과 달빛 이슬을 맞으며 차의 향을 축축한 수련 향으로 만들어 버린다. 아침 일찍 꽃봉오리가

입을 벌릴 때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 차로 차를 달였다. 말단 관리였던 남편 수입으로 향기로운 고급차를 끌 수 없어 생각해낸 운(芸)의 지혜다. 이 같은 맛을 운 이가 떠난 후에 알게 된 심복은 회한의 눈물로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. 인어당은 운은 중국문학에 있어 가장 사랑스런 여인이었으며 뛰어난 재인으로 손꼽는다고 했다. 부생육기에 나오는 수련은 연꽃을 말함입니다. 수련은 물에 떠서 꽃을 피우기에 꽃 봉우리가 닫히면 반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. 수련 꽃 속에 차를 넣었다가는 더러운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. 연꽃차라 하여 연꽃 속에 녹차를 넣고 연꽃을 잘라 그 위에 얹힌 물을 부어 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은 잘못된 음다 행위라 할 것입니다. 위 글에도 있다시피 연 향이 너무 진 하면 그것이 연차 인지 녹차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. 차의 근본은 녹차 인니다. 녹차에 약간의 연향을 가미하여 향긋함을 맛보기 위함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를 들며

를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. 부생육기에 나오는 글은 연향차입니다. 연꽃 차는 연꽃만을 갖고 끓인 차를 말함입니다. 연꽃 한 송이 따서 얹힌 물을 부어 차를 마시든 그게 무슨 잘못 이겠습니까. 만은 모름지기 차란 서양의 커피 마시는 듯해서 는 안 됩니다. 차엔 풍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을 줄여 도라 불이기도 합니다. 도란 예의 범절을 말함입니다. 연꽃 한 송이면 죽히 10여명이 차를 마시고도 남습니다. 왠지저길 소란스럽게 마시는 차는 도가 아닙니다. 차엔 제다 인이 있고 음 다 인이 있습니다. 만드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. 당연히 음용하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.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여 음용 하는 것입니다. 정성과 철학이 없으면, 결코 다도인 이라 할 수 없습니다.